

나주시, 지역먹거리 명소화 '나주밥상' 지정업소 발굴

2023년부터 시행 음식점 36곳 선정 18일까지 신청 관광 활성화 일환 선정시 사회관계망 홍보 강화 지원 맛·위생·서비스·가격 등 종합 평가

나주시가 우수한 맛과 위생, 착한 서비스와 가격으로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2025년 '나주밥상' 지정업소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해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관내 외식 업소를 의미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자 먹거리 명소화

를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발굴해 지난 2023년부터 외식업소 36곳을 선정했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국산김치자율표 시제 인증', '지역 식재료(로컬푸드) 우선 사용', '덜어 먹기', '수저 등 위생관리', '남은 음식 폐기', '입식테이블화', '청결한 주방·화장실 문화', '종사자 친절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실천한다.

시는 업소에 지정현판, 음식문화개선 실천 물품, 경영마인드·친절서비스 교육, 맛집 지도제작,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지원한다.

노후화된 주방, 화장실 보수, 입식 테이블 설치 등 시설개선 보조사업도 함께

추진해 지정업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밥상 지정업소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영업 신고 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중 식사를 취급하는 업소다.

신청은 18일까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음식문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생시설 서비스 등 현장평가, 3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식의 맛·위생·서비스·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여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책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모집해 현장

평가 의견을 반영한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나주밥상 지정업소 모집 공고) 또는 나주시 보건행정과 음식문화팀으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건강, 안심, 배려 실천을 통해 나주의 선진 외식 문화를 확산하고 음식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 데 앞장설 나주밥상 업소를 모집한다"며 "나주밥상 100곳 지정을 목표로 먹거리 관광이 500만 관광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취약계층 아동 대상자 신규 발굴 곡성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곡성군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이들 또는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아동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상담 및 양육 환경 조사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분야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자원 및 후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후원 물품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농산어촌 특화 대상으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신규 발굴을 추진했다.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들 스스로가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제적으로 찾아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다문화 모국 춤 페스티벌 개최 화순군, 19일 남산공원 일원서

화순군은 '2025 화순 봄꽃 축제' 기간인 오는 19일 오후 3시 화순 남산공원에서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남산공원 축제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多)양한 문화꽃을 잇다'를 주제로 화순군가족센터가 주관하며 결혼이민 여성들이 모국의 전통춤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페스티벌에서는 △필리핀의 '퀸덤'과 '판단고 사일라우' △캄보디아의 '로밤 크라마' △중국의 '상왕행 전통춤' △베트남의 '반조이느억 전통춤' △일본의 뮤지컬 '화순에서의 삶'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화순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미화 인구정책과장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조합원 자녀 60명 장학금 전달 북광주농협, 후계 인재 육성 목표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은 지난 2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며 총 55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조합원 자녀 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북광주농협은 미래 농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후계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매년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1591명을 대상으로 총 11억205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구상봉 조합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더욱 노력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라며 농업과 농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함평군청 직원들이 지난 2일 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군민들에게 산불예방을 안내하는 전단지 배부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산불예방 특별 홍보 캠페인

함평군이 주민에게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며 산불 예방을 독려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일 함평천지전통시장과 터미널 일대에서 '산불예방 및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시장을 찾은 상인과 주민, 터미널 이용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발두령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 사용 자제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훼손 금지 등 산

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작은 부주의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예방 조치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내법인 1124개 대상

함평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6월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직권 연장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돼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해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전에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 학교면 제29회 면민의 날 지역 장학생 7명 선발 등 성황

함평군 학교면에서 주민 1000여 명이 모여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은 6일 제29회 학교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일 학나라문화복지센터 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우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도의원, 안순영 학교면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학교면 주민 등 1000명이 참석해 지역민이 화합과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학교면번영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경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 애도의 뜻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예년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면민의 상, 장수상, 공로패 등 9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번영회와 재림장학회는 지역 장학생 7명을 선발해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임재문 학교면 번영회장은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로 서로 돕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학교면민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학교면민의 날을 통해 지역의 따뜻한 정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